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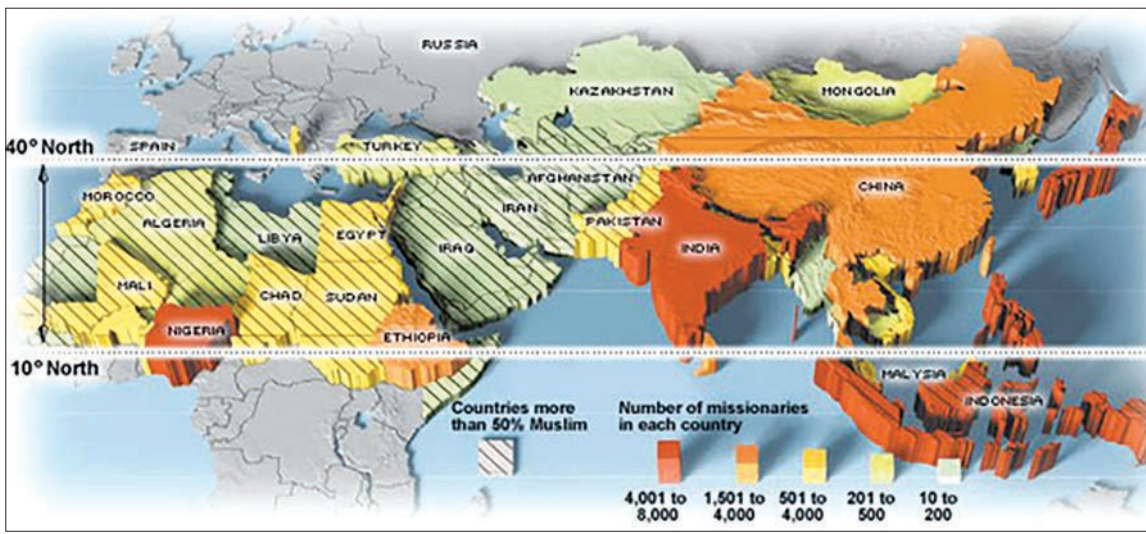
## 400개 미전도종족 위한 연합 기도운동 “UT 400 캠페인” 시작

SWM 선교회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연합 기도 운동 전개

실크 웨이브 미션(대표 김진영 선교사 이하 SWM 선교회)은 오는 10월 1일(화)부터 2020년 10월 31일(토)까지 400일 동안 매일 한 개의 미전도 종족을 소개하고, 이들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 운동을 전개한다.

SWM 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는 1백만 명 이상의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400개 이상 존재하고 있다”며 “하루에 한 민족을 위해 400일 동안 기도하는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SWM 선교회는 “1974년 로잔 선교대회에서 보고된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은 대부분이 10/40 창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숫자는 1만 2천 종족에 달했으나, 45년이 지난 오늘,



미전도종족이 집중된 10/40 창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으로 400여 미전도 종족이 남게 됐다”며 “복음 전파와 영혼구원을 위한 400일 기

도 운동에 지역 교회와 기도 동역자들을 초대한다”라고 밝혔다.

SWM 선교회는 “중보기도 사

역으로 진행되는 ‘UT(Unfinished Task) 400 캠페인’ 기도운동은 언어와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의 확장을 위한 연합사역이 될 것”이라며 “지구 상에 있는 400개 미전도 종족이 있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까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민족을 붙들고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진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운동에 동참해달라”라고 촉구했다.

SWM 선교회는 400일 동안 매일 기도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사이트 (www.silkwavemission.com www.globalupm.net/gpd)와 스마트폰 등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으며, UT 400 책자를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 714-999-8639 SWM선교회 김동욱 기자

## ‘기부천사’ 선, ‘밀알의 밤’ 위해 LA 온다

오는 11월 1일(금)부터 3일(주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주제로 간증, 공연 예정



매년 ‘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마련해온 남가주 밀알선교단은 기부천사로 불리는 ‘선’을 초청해 ‘밀알

의 밤’을 개최한다. 올해 밀알의 밤은 오는 11월 1일(금)부터 3일(주일)까지 ANC온누리

교회, 남가주 새누리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열리며, 선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간증과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1997년 힙합 듀오 그룹 ‘지누션’을 결성해 가수로 데뷔한 선은 한국 힙합 음악의 대중화를 이끈 장본인으로 ‘Gasoline’ ‘말해줘’ ‘A-yo’ ‘전화번호’ 등 정규 앨범 4장과 영어 앨범 1장을 통해 여러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2004년 결혼한 배우 정혜영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기부 활동을 활발히 펼쳐 ‘푸르메 어린이 재활병원’과 ‘루게릭 요양병원’의 설립에 크게 기여

했으며, ‘대한민국 온도 1도 올리기’라는 연탄 봉사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한국 사회 곳곳에 따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선은 컴패션 홍보대사, 홀트 아동복지회 홍보대사, 밥피 협력대사 등 여러 재단의 홍보대사로 활약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후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남가주 밀알선교단은 “은혜롭고 감동적인 간증과 공연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학업에 임하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모아 주길 바란다”라고 초대

했다.

밀알의 밤 입장권은 1인당 15달러이며 모금된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밀알선교단은 2001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에게 <밀알 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수여하기 시작해 2019년까지 \$2,387,000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미주 장애인 장학생 9명과 근로복지생 3명, 꿈나무 장학생 38명, 제3국 및 북한 장학생 0명, 장애인 선교사역자 육성 장학금 20명, 긴급지원 대상 추가 기금 10명 등 총 90명에게 \$153,200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동욱 기자

번역/공증/파산

### 법무사 ~

- 학교설립 / 인가 전문
  - 연방정부 SEVIS 유학비자 신청
  - 신학/경영대학, 사립초중고교, 홈스쿨링, 유치원
- 교역자 누구나 신학사, 석사, 박사 과정 개설 가능

EG Global LDA Service  
생활법률 속성해결사  
T: (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2018047569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제 26회 한미연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AMHERST INTERNATIONAL  
담임목사 한기홍

# 목회자 사모 세미나

“심, 회복 그리고 사명의 길”

**일시:** 2019년 10월 7일(월), 8일(화) 10:00am~9:3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비전센터 2층)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대상:** 목회자(목사, 전도사) 사모

**참가비:** \$20(선착순 100명)

**강사:** 피종진목사(남서울중앙교회), 한기홍목사(은혜한인교회), 설동욱목사(예정교회), 박태남목사(정릉벨레교회), 정삼숙사모(성안교회)

**주최:** 목회자 사모신문(이사장 피종진목사, 발행인 설동욱목사)  
미주복음방송(이사장 한기홍목사, 사장 이영선목사)

**문의:** 김대섭행정목사(714.336.4478 / dskim143@gmail.com)

#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것!”

## 좋은마을교회 창립 35주년 감사 예배드려



좋은마을교회 성도들은 창립 35주년 감사 축제 예배에서 아이들을 위해 축복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마을교회(담임 신원규 목사)는 지난 9월 8일, 교회 창립 35주년 감사예배를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교회가 지난 35년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 힘써 온 GOG(Garden of Grace)사역, PM(preaching ministry)사역, MKW 고아 사역 등을 되돌아보며, 앞으로도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나아갈 것을 표명했다.

신원규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35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신원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는 박성수 목사(장조교회)가 기도했으며, 좋은마을교회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는 페이스 커뮤니티 처치(Faith Community Church) 짐 엘빙튼 목사(Jim Yelvington)가 “종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엘빙튼 목사는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며 “지난 35년 동안, 매 순간 좋은마을교회와 동행하신 종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규 목사를 한국어로 ‘형님’으로 부르며 친분을 과시한 엘빙튼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자”라고 덧붙였다.

좋은 마을교회 35년 역사를 회고한 김동진 장로는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사랑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맘 흘리며 헌신해 온 성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 아주사대학교 부총장 박성민 박사, EKPC 총회장 장광준 목사, 영 김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가든 글로브 처치 덴 키텐 목사가 축사했으며, 19년 전 좋은마을교회가 지교회로 개척한 덴버 삼성교회 이동훈 목사, 좋은마을교회와 GOG 사역을 28년 동안 펼쳐온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 동명교회 김희선 장로, 남부교회 정현백 장로가 좋은마을교회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동욱 기자



굿네이버스USA 김수지 나눔대사 위촉식

### CCM 가수 김수지 굿네이버스 나눔대사 위촉

‘이 시간 너의 맘 속에’ 등 다양한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CCM 가수 김수지 씨가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USA(회장 이일하) 나눔대사로 위촉됐다.

지난 5일, 굿네이버스 USA 본부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는 굿네이버스 직원들을 비롯해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 남가주웰로쉽교회 박해성 목사가 참석해 나눔대사 위촉을 축하했다.

굿네이버스 USA는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찬양사역자 김수지 씨가 양 국가를 오가며 활발한 나눔 사역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김수지 씨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불러주시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며 “지구촌에 소외된 아이들에게 웃음과 꿈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수지 씨의 오랜 친구이자 10여 년 전부터 굿네이버스 나눔대사로 활동해온 조수아 씨는 “모든 나눔의 행적을 돌아보면 각자가 한 일이 아니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을 볼 수 있다”며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일에 김수지 씨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라고 축사했다.

한편 김수지 씨는 오는 10월, 15년 만에 정규앨범 6집 ‘나뭇가지’를 발표하고 사역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 전 세계 한인 선교사 쉼터, GCC 건립 기금 마련 콘서트 열려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진행된 글로리 크리스찬 센터(GCC) 건립 후원음악회

글로리 크리스찬 센터(Glory Christian Center 대표 김미선 교

수, 이하 GCC)는 지난 8일, 드림 투 드림(Dream to Dream)이란 주제로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 GCC 건립을 위한 자선콘서트를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신영각 목사)에서 개최했다.

모든 출연진이 재능기부로 참여한 이날 콘서트는 석기향 박사의 오르간 솔로를 비롯해, 그레이스 흥의 하프 솔로, 권대술의 바이올린 솔로, 오위영 목사의 테너 솔로, 크리스티나 천의 마림바 연주, 오렌지 미션콰이어의 합창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김미선 대표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서로의 사역 보고를 통해 선교 협력을 도모하는 GCC건립에 마음과 물질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GCC는 초교파로 운영하며 온 삶을 드려 헌신하는 현장 선교사들이 안식과 쉼을 얻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LA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이 잠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와 영혼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을 위한 GCC 건립에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했다.

GCC 후원에 대한 문의는 : 213-369-3861(USA), 010-2638-5127(Korea) Kakao Talk ID : pilgrim01 이메일 : genesismusic2000@gmail.com 으로 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의 후원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 창립 22주년 감사 예배 및 임직식

남가주 명성교회 창립 22주년 기념 감사 예배 및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식을 가지려 합니다. 부디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 : 이재익 권사 : 김희은, 유연수 안수집사 : 유주영, 이중홍

일시 : 2019년 9월 15일 오전 11시  
 장소 : 남가주 명성교회 예배실 (담임 정해진 목사)  
 520 S. La 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문의 : (213)445-9182



담임 정해진 목사



## 남가주 명성교회

# 미주 한인교회 법률적 보호, '정관' 및 '신앙 선언문' 필수

## 아주사 퍼시픽대학 한인 동문회 주최 "법과 교회 세미나" 성황

아주사 퍼시픽대학 한인 동문회(회장 승광철 목사)는 태평양법률협회와 함께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LA 한인타운 가든스위트호텔에서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란 주제로 "법과 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인 교계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열린 세미나는 태평양법률협회 한국 디렉터 주성철 목사, 태평양법률협회 브래드 대쿠스 대표, 태평양법률협회 마이클 페퍼 상임 변호사가 나서 교회가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교회 내 분쟁', '동성애자들의 기독교 신앙 가치관 공격', '공립학교 성교육 확대' 등 미주 한인들도 예외일 수 없는 문제를 다루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태평양법률협회 브래드 대쿠스 대표는 "한인교회나 성도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다"며 "목회자와 성도들의 자유와 권리, 종교 활동에 대한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돕고 있기 때문에, 한인들도 태평양법률협회로부터 법적 인 보호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동성애 관련 분쟁, 반복 훼방자 교회 정관 및 신앙 선언문 반드시 만들어야

태평양법률협회 한국 디렉터 주성철 목사는 "대다수 한인교회가 영어



아주사 퍼시픽대학 한인 동문회가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로 작성된 정관이나 신앙 선언문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동성애자들의 '교회 대역'나 '교회 사역 참여 요구', 혹은 교회 신앙과 맞지 않는 교역자의 청빙과 해고, 교회를 반복적으로 훼방하는 이들로부터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정관과 신앙 선언문"이라고 말했다.

주 목사는 "훼방자들이 법적 소송을 가하더라도 교회 정관과 신앙 선언문이 있는 경우,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다"며 "교회나 비영리단체는 동성 결혼에 대한 방침이나 교회의 신학 신조가 기록된 문서화된 교회 정관과 신앙 선언문을 만들어 놓으라

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태평양법률협회에서는 기독교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관 형식과 신앙 선언문을 제공하고 있다"며 "교회나 기관에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 성교육 문제 학교, 교육구, 시의회에 반대 의사 표현해야

브래드 대쿠스 대표는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과 에이즈 예방교육은 성교육을 넘어, 혼외정사를 정당화하고 항문 성교를 정상적인 성관계로 교육하고 있다"며 "이런 교육은 유치원부

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교재를 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과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성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들까지 크리스천의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며 "심지어 피임 교육뿐 아니라 낙태 약물까지 부모의 동의 없이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청소년들의 조기 성관계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대쿠스 대표는 "캘리포니아 주가 공립학교 성교육을 허락했지만, 법적으로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학

생들을 성교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며 "학교 PTA 모임을 비롯해 교육구 모임에 참석해 의견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방된 성교육에 찬성하는 비기독교인들은 학교 PTA 모임이나 교육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반면, 기독교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참석이 저조하다"며 "우리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태평양 법률협회는 1997년 설립이 되어 종교의 자유, 부모의 권리, 그리고 인권 옹호를 향변하는 비영리단체로 교회나 사립학교 안에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제제받는 일, 종교적인 기준 때문에 교회나 비즈니스가 공격을 받는 일, 교사와 학생이 공공장소에서 믿음 때문에 제제받는 사안 등을 다루며, 특별히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의 권리 및 종교 자유에 대해서 무상으로 돕고 있다.

태평양 법률협회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을 두고 22년 동안 4천여 케이스를 소송을 맡아 75% 이상 승소했을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50개 주 전역에 협력 변호사 1천여 명을 두고 있다.

태평양법률협회: [https://www.pacificjustice.org\(영어\)](https://www.pacificjustice.org(영어)) [https://korean.pacificjustice.org\(한국어\)](https://korean.pacificjustice.org(한국어))

김동욱 기자

# 글로리 싱글즈 커뮤니티 창단 "건강한 가정, 성경적 가정을 세웁니다!"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개최된 GSC 창단 행사에서 축가를 부르는 뮤지컬 '도산' 주인공 테너 최원현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지난 7일,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미혼 1.5세대와 2세들을 위한 싱글 모임의 일환으로 미혼 자

녀들을 둔 부모들과 지역 단체장들을 초청해, 글로리 싱글즈 커뮤니티(Glory Singles Community 이하 GSC)의 창단과 앞으로의 운영 계획

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승훈 목사는 "GSC는 성경적 결혼관과 올바른 가정관을 심어줌과 동시에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역으로 주님의 영광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는 목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운영된다"며 "전문 강사를 통해 성경적인 결혼의 가치관을 심어주며, 미팅, 교제, 자신 소개, 나눔, 토론을 통해 서로를 알아 가게 되어 자신과 맞는 만남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라고 소개했다.

신 목사는 이어 "청춘 남녀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경적 결혼관과 부부의 역할에 대해 교육할 것"이라며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만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GSC 창단을 준비한 미주 한인재단 LA 회장 이병만 장로는 "자녀들을 비롯해 주변에 있는 미혼 크리스천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GSC는 오는 11월 2일(토) 오후 4시, 3일(주일) 오후 4시, 10일(주일) 오후 4시, 세 차례 모임을 갖고 만남이 이뤄진 커플들을 위해 결혼 준비 강화를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한기형 목사는 "GSC를 통해 성경적인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축하했다.

미주 장신대 이상명 총장은 "한인 이민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젊은 세대를 세우고 가정을 일으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자녀 세대에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를 통해 이민 사회와 교회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총신 동문회장 김경일 목사는 "오늘날 가정의 파괴와 해체가 가속화되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스르는 일들이 창궐하고 있다"며 "그리스도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자녀를 많이 낳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213-700-6541(레슬리 조권사) 808-687-0205(한상인 목사)

김동욱 기자

# 미성대학교(AEU) 총장 취임 감사예배

## 제4대 이상훈 총장 취임



이상훈 총장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미성대학교(AEU) 제 4대 총장 취임 감사예배를  
아래와 같이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정중히 초청합니다.

초청인 이사장 조 종곤 총장 이 상훈

일시 : 2019년 9월 15일(주일) 오후 5시

장소 : 마가교회 (미성대학교 2층)  
1818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주관 : 미성대학교(AEU) 이사회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26

### “미주 노숙인 한인 선교단체 협의회” 정기총회를 다녀와서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Korean American Coalition for the Homeless” 총회와 수련회가 있었다. 매년 북미주의 각 도시 사역지를 돌면서 총회가 열린다. 올해는 엘에이 지역에서 사역하는 울타리 선교회가 호스트가 되어서 각 지역의 홈리스 선교 단체 사역자들이 함께 모였다.

필자는 엘에이 울타리 선교회의 운영이사로서 회원으로 참여도 하고 강사로도 섬기며, 매년 이 모임을 참석한다. 지난 몇 년 올해까지 참석하면서 드는 생각이 “아! 홈리스를 위한 사역의 범위가 각 단체마다 매우 확장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사역에 발전이 있었다.

그런데 발전이 있었다는 말이 마음을 씩씩하게 한다. 왜냐하면 홈리스 사역의 발전은 그만큼 각 지역의 홈리스 형제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도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총회에서는 다음 한 해 이 협의회를 이끌어 갈 회장도 선출하지만 각 지역 단체들의 일 년간의 사역보고의 시간이 너무도 감동적이고 도전이 된다. 시카고, 시애틀, 엘에이, 뉴욕,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지역 등 북미주 도시들 마다 형성되어 있는 홈리스 형제들을 위한 선교단체는 그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선교단체가 안고 있는 사역의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엘에이 울타리 선교회만 해도 엘에이 다운타운의 홈리스 수가 수를 더하면서 이제 점점 밖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통계로 엘에이에만 4만 명으로 그들의 수가 급증하였다 한다. 그러는 중 엘에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학생들 중 약 20퍼센트가 홈리스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말에 울타리 선교회는 4년 전부터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숙사 시설을 계획하고 올해까지 4회의 “자선모금 음악회”를 다운타운에 있는 월드 디즈니 컨서트 홀에서 열었다. 그 수익금을 모아 기숙사 시설을 마련하여 다음 세대들은 홈리스에서 탈피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와 토론토 지역

도 지난 몇 년간 홈리스 형제들의 수가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유는 캐나다의 미국과 달리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수만 명씩 받아주는 난민 수용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난민들이 사회에서 냉대받는 홈리스들로 대거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한인 선교단체들은 그 이방의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차원의 홈리스 사역을 더 확장시킨 것이다. 예전에는 홈리스 사역이 도너스와 커피 공급 정도의 봉사였는데 지금은 그들의 진로와 교육, 자녀들을 위한 육아와 언어학교 등까지 개설하여 실로 홈리스 선교단체들이 글로벌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카고의 홈리스 사역은 그들 중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따로 모아 그들의 은사와 적성대로 신학도시키고, 자기 전공을 공부할 수 있게끔 교육사업과 해외 선교사 후원까지도 담당한다. 필자는 그들의 사역과 계획을 들으며 “아!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역에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 홈리스 사역도 “하나님의 선교(Misio Dei)”로 이해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아직도 홈리스 사역은 개교회들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본다. 지역사회의 교회들이 우선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열악한 선교지인 이웃의 홈리스 형제들을 돌보고 함께 살기 위한 마음을 더욱 나누어야 할 때다. 총회를 마치며 함께 기도했다. “사랑의 주님! 여전히 사회의 냉대속에서 눈물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저들을 도우소서. 교회를 깨워주소서. 모두가 연합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행복 만들기(2) 감사 편지를 쓰자!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UC Riverside) 심리학과 교수인 소냐 류보머스키(Sonja Lyubomirsky) 박사는 세계적인 행복학 학자입니다. 25년 이상 행복학을 연구한 그녀는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소냐 박사는 또 “행복은 습관이기 때문에 교사나 학부모가 아동들에게 행복의 경험을 반복해서 갖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소냐 박사는 ‘행복을 만들어 가는 일들’을 추천합니다. 예컨대 ‘친절한 행동 실천하기’, ‘감사한 일 적어보기’ 그리고 ‘용서하는 편지 써보기’ 등 사소하지만 행복을 조장하는 행동들을 반복하라고 추천합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소냐 류보머스키 박사가 행복 만들기로 추천하는 일이 감사편지 쓰기입니다. 류보머스키 박사는 “행복을 원한다면 용서의 편지 그리고 감사편지 쓰기 등 사소하지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활동을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감사 편지 쓰기는 편지를 받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편지를 쓰는 본인에게도 굉장한 좋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 주에 있는 켄트 주립 대학교 (Kent State University)의 토퍼 박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에 강한 영향을 준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6주 과정의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2주에 한 통씩 감사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감사 편지를 쓴 학생들은 큰 행

복을 느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감사 편지를 쓴 학생들이 삶에서 느끼는 결과를 계량화해보니 편지를 쓴 대부분 학생들이 상당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참여 학생의 75%는 이 프로그램이 끝난 뒤 개인적으로 감사 편지를 계속 쓰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토퍼 박사는 “이번 실험을 통해 ‘솔직히 감정을 드러내는 감사 편지 쓰기’가 건강을 증진시키며,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면역력 향상, 성적 향상 등에 큰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토퍼 박사는 “행복해지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감사 편지 쓰기”라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라는 놀라운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감사편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 편지로 행복을 경험하면 간단하게 감사편지 쓰기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편지 쓰기는 행복 증진에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감사편지로 발신자 수신자 모두가 행복을 경험합니다.

감사편지의 효과를 증명하는 또 다른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긍정심리학 창시자인 셀리그먼 (Seligman) 박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실천적 전략 중의 하나로

‘감사 방문’을 제안합니다.

셀리그먼 박사가 제안하는 감사 방문은 사전에 쓴 감사 편지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감사편지를 들고 방문해서 소리 내어 감사 편지를 읽어주는 감사 방문은 감동의 시간이었답니다. 감사편지를 읽으면 거의 모든 상대방이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감사편지 수신자가 행복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면 감사편지의 발신자도 큰 행복감을 갖습니다. 한 번의 수고로 자신과 이웃의 행복을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감사 편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는 이유는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이 됩니다. 감사 편지는 우리들에게 즐거운 사건들을 떠올리게 해 주고, 그것은 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게 하고,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즐거운 감정을 느끼게 해 줍니다.

행복학에서 말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행복 누리기 “감사”입니다. 지난 몇 번의 행복 캠프에서 ‘감사의 능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이 ‘감사 편지 쓰기’입니다. 감사하기가 행복 만들기 첫 번째 실천 방안이라면 감사편지 쓰기는 행복 만들기 두 번째 실천 방안입니다.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감사헌금 봉투에 구체적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가까운 가족에게, 가까운 이웃 그리고 가까운 친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편지를 보내 보세요.

감사의 편지를 쓰는 순간부터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펜을 들어 감사편지를 써 보세요. 행복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투찌에 마을에 희망을!

세계 최빈국 아이티의 빈민촌 투찌에(Truitier) 마을! 쓰레기 마을에 형성된 투찌에 마을!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투찌에 마을을 살리는 희망의 팔찌를 판매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일감을 주고, 아동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주는 팔찌 판매 프로젝트입니다. 주민들의 노동비, 재료비, 탁송비 등을 제외한 판매 수익금 투찌에 학교 건립과 투찌에 주민 생활 개선에 사용 될 것입니다. 투찌에 학교건물은 주일에는 교회로, 야간에는 장년 교양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 팔찌 1개 \$20  
30개 이상 주문시  
우편 등으로 배달됩니다.

- 문의: World Share USA  
강태광 목사  
(323) 578-7933



아이티 투찌에 마을 학교를 세웁니다!

투찌에 마을 학교 교실을 분양합니다!

- ◎ 6개 교실 1개 강당(교회로 활용), 1개 주방
- ◎ 3,000불 지원으로 교실 1개를 마련합니다.
- ◎ 후원자(기관) 이름으로 교실을 건축합니다.

World Share USA  
3020 Wilshire Blvd, #160, LA, CA90010

대표: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죄인은 없습니다!”



올림픽 장로교회에서 간증집회를 인도하는 고봉준 목사

## 고봉준 목사 간증집회 열려

고목사는 제주도 출신으로 믿지 않는 가난한 가정의 12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고깃배를 타는 일부더 각종 배탈, 막노동, 구두닦이, 가릴 것 없이 온갖 어려운 고초를 다 겪다가 17세가 되던 해,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

나쁜 이들의 꾀임으로 감옥에서 수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폭력과 방탕함으로 얼룩진 인생은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주변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시작한 새 삶도 오래가지 못했다.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미국으로 입양 보내는 안타까운 시간도 보내야 했다.

그러다 자신의 책 제목과 같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옥에서 사형수의 기도 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전파자로 변화됐다.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음의 나팔수로 만들어져 갔다. 1992년 5월 사마리아교정 선교회를 설립했으며 서울 성북·영등포·종암경찰서, 의정부 교도소, 해외 부흥회 등에서 2000회 이상 집회를 인도했다. 교정 선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골통 목사의 전도행전 1·2’,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서도 발간했다.

하나님은 고목사에게 뜻하지 않은 선물도 주셨다. 지난 2011년에는 28년 전에 입양 보낸 아들과 극적으로 상봉했다. 더욱이 아들은 입양

한 부모가 이혼한 뒤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앙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하여 미국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목사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신앙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어야 한다”며 “전도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고, 그들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자를 단련시키시기까지 많은 시간을 훈련시키는데, 큰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장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성은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은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풀무가 은과 금을 뽑아내는 과정과 같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사마리아 교정 선교회 고봉준 목사 간증집회가 지난 6일, 올림픽 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에서 열

렸다. 이날 고목사는 자신의 삶을 간증하며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을 살라’고 강조했다.

## “우리의 작은 빛, 세상을 밝히는 소망되고파”



제2회 하자회(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기도회) 기도와 찬양축제



하자회 찬양축제를 인도하는 김브라이언 찬양 사역자



김은정 집사의 은혜로운 수어 찬양

제2회 하자회(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기도회)의 기도와 찬양축제가 지난 7일, 돌로스 선교교회(황의정 목사)에서 열렸다.

찬양 축제는 찬양사역자 김브라이언의 열정적인 찬양과 간증을 전했으며, 김은정 집사는 은혜로운 수

어 찬양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찬양에 이어 가족과 이웃, 친구 그리고 교회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축제는 양수용 목사(주예수산성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하자회 정성림 대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과 기도로 함께 모일 수 있어 감사하다”며 “다음 세대의 부흥과 남가주 지역 복음화를 위한 모임을 지속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정은진 기자

##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주류사회에 ‘추석 문화’ 소개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회장 한기형 목사, 이하 남가주 교협)는 지난 10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캐슬린 바저(Kathryn Barger)의 초청으로 LA 카운티 홀에서 극동아시아의 추수감사절인 추석을 소개하고, 아시안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가주교협 부회장이자 미주 한인재단 LA 회장인 이병만 장로의 주선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는 회장 한기형 목사, 이사장 김향로 장로, 부회장 이병만 장로, 총무 안신기

목사 등이 참석했으며, 남가주 교협은 추석 문화 소개와 더불어 축복 기도하는 순서도 가졌다. 남가주 교협은 이번 행사를 바탕으로 LA 시와 카운티에 한인 문화를 소개하고, 한미간 정치,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병만 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LA 현안을 다루는 정치권과 한인 사회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며 “매우 고무적인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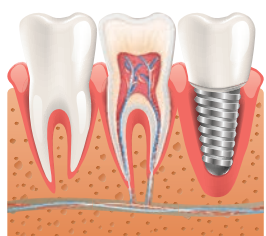
정은진 기자



LA 카운티 홀에서 추석 문화를 소개하는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가이드 임플란트

### 이동희 원장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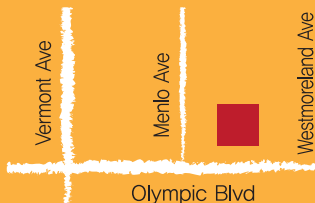


#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 무엇을 위한 인연인가?

열왕기상 17:8-24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아합 왕 때 그가 시돈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그는 신앙이 이성 자율주의적 경향으로 제멋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통성을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여인을 왕비로 맞이하게 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시집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섬겨왔던 미신우상을 가지고 왔고 원래 의지심이 약하고 인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아합을 쉽게 사로잡아서 왕비가 왕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비인 이세벨이 실제적인 통치권을 잡게 되면서 전 이스라엘의 비극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한 제사장을 850명이나 세워서 국비로 생활을 보장하게 했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자들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권력으로 바른 진리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직장을 얻을 수가 없고 세금도 과다징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대 없이 신앙인격이 뿌리내리지 못한 믿음 약한 사람들은 우선 육신의 형편이 될 시달리며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신앙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변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아합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밤에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그 땅에 초목이 살 수 없도록 하셔서 사람들과 짐승이 죽어 형편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그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합 왕을 찾아가서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아합에게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릇 시냇가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주게 하시고 그 시냇물을 마시며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붙들여 쓰시는 사역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열성을 다해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한 최저 생계대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하나님의 명으로 그렇게 그곳에 있던 중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시대의 물이 다 말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물을 찾아 나서든지 땅을 파보든지 했을텐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

임져 주셨으니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는 강물 마름으로 인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제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은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육신의 형편처지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라도 자기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 절대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확인하신 후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과 시련을 벗어나게 하시고 훨씬 더 나은 대책을 예비해 주심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릇 시냇가는 편히 누워 잘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여러 날을 기도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를 공제하도록 예비해 주신 것은 그가 그릇 시냇가에서의 시련에 합격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아가 사르밧 성문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고 청하고는 물을 가지러가는 그 과부를 향해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드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를 잘못 생각하면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람이 말재간 떨어져서 빼앗아 먹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르밧 여인도 마찬가지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말씀에 기대를 걸고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하신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듣고 믿어저서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엘리아를 처음 모셨을 때는 아마 구세주와 같이 하나님처럼 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르밧 여인은 자신의 것으로 공제하듯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과부나 그 집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를 섬기는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망각하고 섬기는 일이 귀찮고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시련에 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몽둥이를 드신 것입니다.

아들이 죽고나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라고 꾸짖습니다. 벌써 모자가 죽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동안 엘리야 덕분에 살아왔던 일에 감사할 줄 모르고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죽은 그 아이를 달라하여 그가 우거하는 다락방으로 옮겨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며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듯한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 할일없이 과부의 공제만 받으며 살아왔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 있어야 하는데 이번 일로 인하여 이곳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꾸짖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엘리아와 사르밧 과부와 의 만남과 그 아들의 죽음은 육신의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진리

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영적인 구원까지 얻어야 하는 목적으로 맺어 주신 것이며, 나태해진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를 각성시켜 분발하게 하고 사역에 새로운 열심히 새 출발시켜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시도하신 이유였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속에서 고난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잘 믿는다고 절대로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도리어 영적인 소망에 믿음으로 온전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환란을 당하게 합니다. 때론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고 실패와 쓰라린 수모와 곤욕을 당하게도 합니다. 억울한 손해도 보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세상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위한 것인데 그것을 위한 자격 갖추기를 서두르지 않고 허무맹랑한 일에 골몰하며 시간과 정욕을 잘못 허비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고난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무슨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 하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도한 일이 적중되어 성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 회개하고 엘리야도 과부에게 영적인 소망을 일깨워주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인해 엘리야와 과부에게 기대하셨던 영적인 소망이 바른 자세로 회복을 보게 되니 죽은 아들의 영혼을 되돌려 주심으로 되살아나게 하셨습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 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 30분 / 동부 오후 7시 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

비만의 개선

**Cyclo-Z**  
세계최초 당뇨치료를 위한 생약제제

전립선 질환 개선 및 알츠하이머의 예방

### 프로지의 특별한 힘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프로지

###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병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인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 등이 줄어듭니다

###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Z 특허로 입증된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213.434.1170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uente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 추석맞이 SPECIAL SALE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500 LEASE CASH,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71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250 LEASE CASH,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 담임 목사 청빙

아리조나 피닉스 서쪽에 위치한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에서는 20년째 담임 목회를 해오신 조정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후임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 자격

1. 정규 신학 대학, 또는 대학원이상 졸업하신 분
2.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3. 미국 체류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 ■ 제출 서류

1. 이력서
2. 목사 안수 증명서
3.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4. 자기 소개서
5. 최근 설교 CD
6. 추천서

### ■ 제출 방법

1. 청빙 위원회 이메일 (jungeun.park1014@gmail.com)
2. 우편 (430 N. Lewis St., Mesa AZ 85201)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31일(화)

■ 연락 : T.(480)435-0998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 부목사 청빙

캘리포니아 LA 동부 Chino Hills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실 Full-time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www.sunhanchurch.com](http://www.sunhanchurch.com)

### 1. 지원 자격

- 1) ECO(복음언약장로교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www.eco-pres.org](http://www.eco-pres.org)) 교단에 속해 있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
- 2) 정규 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 3)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4) 장년부 사역 유경험자

### 2. 모집분야

- 1) 풀타임 부목사 (1명)

### 3. 제출서류

- 1)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 2) 자기소개서 1부 (신앙고백 및 간증문, 사역 및 일반 경력, 은사, 가족소개 및 사진)
- 3) 최근 1년 이내 설교(2편): 영상 파일 혹은 유튜브 링크
- 4) 추천인 2명 이름과 연락처 (이중 한 분은 이전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목사님)
- 5) 신학대학원(M.Div) 졸업 및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각 사본 1부

### 4. 지원 및 문의

- 1) 이메일 [resume@sunhanchurch.com](mailto:resume@sunhanchurch.com)로 문의 및 지원해 주세요. 이메일로만 문의/접수를 받습니다.
- 2) 접수마감: 2019년 9월 30일까지
-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합니다.
- 4)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5) 최종후보자는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 선한목자교회

##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 (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샷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 T:(562) 383-3566



지난해 열렸던 베델 BAM 컨퍼런스

## “우리 삶의 터전이 바로 선교지,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한다”

Conference 가 일반인에 위치한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오는 9월 20일(금)부터 22일(주일)까지 개최된다.

그동안 “사업을 통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해온 BAM 운동은 상업적 영향력의 증가와 다문화권의 융합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고 있다. 멀리 떨어진 선교지뿐만 아니라, 현재 비즈니스가 형성되고 있는 우리의 삶터와 일터가 BAM의 현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는 이번 BAM 컨퍼런스는 “선교적 삶”이라는 주제로, 삶터와 일터, 그리고 선

교지에서 적용되는 BAM의 이론과 사례들을 다루며, 다양한 상황과 문화와 민족을 아우르는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선교의 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0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질 첫째 날 강의는 한국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BAM 세미나가 진행되며, IBA 사무총장 송동호 목사의 “BAM으로 목회하라” 강의에 이어서, 미주 각지에서 모인 여러 이민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그동안 걸어온 BAM 목회사례들을 발표하며, 다양한 BAM resource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첫째 날 저녁 7시 30분부터 둘째 날 21일(토) 저녁까지 진행되는 평신도 BAM 컨퍼런스는 미주 한

인 BAM 운동에 앞장서 온 CBAM (Center for BAM)과 베델교회가 협력하여 개최하게 되며, 시애틀 온누리 교회 김도현 목사, IBA송동호 목사, CBAM 대표 서명구 교수를 비롯, 유재철 선교사(중국 보이마루), 황진술 대표(The Bridge International), 제프리리 선교사(SfK Ministries) 및 다수의 평신도 BAM 사역자들의 강의와 간증이 이어진다. 특별히 21일(토) 오후 시간에는 선교지 BAM, 삶터 BAM, BAM과 목회, BAM과 가정 등 4개의 트랙으로 선택 강의를 이뤄져, 분과별 토론을 통한 의견 교환과 네트워킹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식사와 저녁 강의 시 베이비 시팅이 제공된다. 단 참석자들은 장소 확보와 식사 제공을 위해 반드시 온라인 [bbmct.org](http://bbmct.org)에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949-232-3963 혹은 [bbmct.org](http://bbmct.org)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 월드미션대학교 상담교실 개강



오는 9월 23일(월)부터 11월 18일(월)까지 9주 동안

개설된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성진 박사 이하 WMU) 상담교실이 오는 9월 23일(월)부터 11월 18일(월)까지 매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스도인의 인격 성장과 관계 회복”이란 주제로 9주

교 기독교상담학과 교수인 김현경 박사가 △결혼 - 부부, 부모 됨, 부모 됨 △원 가족 - 가족 시스템 △전인적 성장 - 영적 공동체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김현경 박사는 탈북 기독교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ANC온누리교회 상담 사역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수료자들은 WMU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고, WMU 진학 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등록비는 100달러이며 문의는 전화 (213)388-1000로 할 수 있다.

정은진 기자

한인교회 내 상담 사역자 간 진행된다. 를 길러내기 위한 일환으로 상담교실은 월드미션대학

## 미션크리스천대학교(MCU) 졸업 및 학위수여식 열려



2019 미션크리스천대학교 졸업 및 학위수여식

미션크리스천대학교 및 대학원(총장 윤요한 박사)은 지난달 26일(월) 오후 6시 30분에 대학교 강당에서 졸업 및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학장 정 윤 박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식은 학교 주요 교수진들과 동문회 임원들이 각 순서를 담당했으며 MCU 남성찬양단이 특별한 양을, 박희민 목사가 비전을 가지고 새 출발(잠언 29장 18절)이라는 제

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윤요한 총장은 “장차 복음사역자로 쓰임 받을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야 한다”며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과 확고한 자세를 준비해야 할 것”임을 당부했다.

이날 졸업한 전비서 장로(남가주 살롬교회)에게는 신학사(B.Th.) 학위가 수여되었으며 총학우회(회장

단 이치호, 태원찬 학우)와 총동문회(회장 김정욱 목사)에서는 축하의 선물을 증정했다.

한편 미션크리스천대학교는 지난 2006년도에 개교한 이래, 학위 취득까지 전체 재학생에게 전액학비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문의 562-869-7497  
[www.mcuniversity.org](http://www.mcuniversity.org)

정은진 기자



## 맥카울 의원 “미국의 가치는 인권과 종교의 자유와 평등”

한인이 초청한 간담회서 북한과 중국의 종교탄압 우려



왼쪽부터 안정현 회장, 문르 카즈미어(Munr Kazmir) 박사, 마이클 맥카울(Michael McCaul) 의원



안정현 회장(사진 제일 우측)이 맥카울 의원에게 질문하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Michael McCaul)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의 가치는 인권과 종교의 자유와 평등”이라며 북한과 중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종교 및 인권탄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맥카울 의원은 4일 정오 맨하탄 WNRC(Woman's national republican club)에서 한인인 안정현 회장(Global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System)의 초청으로 미국 내 주요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의 외교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정치 및 경제에 대한 다양한 대화가 오갔으며, 맥카울 의원은 미중 무역전쟁 등 외교 현황과 관련, ‘인권의 평등과 종교의 자유’라는 미국의 기초를 분명히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정현 회장은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간담회 주최자이자 미국유대인위원회(American Jewish Congress) 부회장으로 미국 정치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문르 카즈미어(Munr Kazmir) 박사는 이날 북한인권과 관련한 대화에서 “북한에는 인권이 없고 종교의 자유 또한 없다”면서 현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카즈미어 박사는 지난 6월 방한해 황교안 대표를 만나 3시간 이상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미국유대인위원회의 지지 서한과 상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뉴욕=김대원 기자



The Masters Pentathlon Swim Meet 대회

## 한인 장애인 선수들, 수영 5종 대회서 선전

동남부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장애인 수영선수 중 세 명이 지난 주말(7일) 존스보로에서 개최된 ‘The Masters Pentathlon Swim Meet’에 참가했다. 이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수영 5종(접영, 배영, 평영, 자유영, 개인혼영) 경기 대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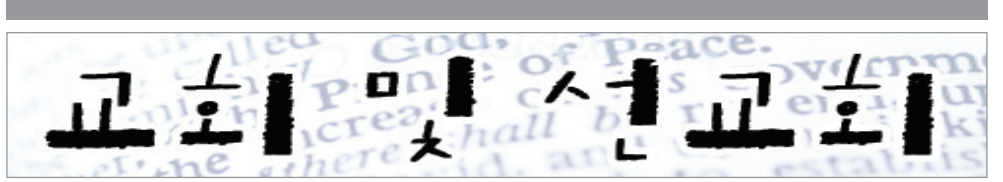
이날 대회에는 중거리 부분에 안수민 선수(자폐장애)가, 단거리 부분에 천조셉(다운증후군) 박건희(자폐장애) 선수가 출전했다. 안수민 선수는 내년 열리는 10월 한국 장애인전국체전에 미국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박건희 선수는 초등학교 시절 약간의 수영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 쉬어오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선전을 했다.

동남부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지적장애인들이 운동 통해 기량을 익히고 대회

에 출전하는 것은 결코 하루 이틀에 있었던 결과가 아니다. 이는 그들 자신의 노력이 아니다. 가족의 눈물겨운 수고와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매일 그리고 다시를 외치며 장애 속에 감춰진 능력을 찾아서 힘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체육회는 인근 6개주(GA, AL, TN, NC, SC, FL) 뿐 아니라 어디서든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과 다양한 사회 복지 혜택, 장애인들의 미래계획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돕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는 분명 아름답고 밝은사회이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주변의 모든 장애인들에게 격려와 성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틀란타=김앤더슨 기자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회차림 순경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고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아침예배 오전 9:00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새벽) 오전 9:30  
3부예배(자세대예배) 오전 11:30 \*찬양사역 각 예배 15분 전  
대학친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영육하고 이인2세를 축복하며, 이인1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교차로)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향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2부예배 오전 10:30 유초등부 오후 10:30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종교동부 오후 10:30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종교동부 EM 오전 11:00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목) 오후 7: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종교동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620-7240, Email: lasehil@213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유년부 오전 11:00  
종교동부 EM 오후 12:3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영양기: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부 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종교동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EM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종교동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관క్ష담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 isaacde@hotmail.com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에배(분당) (소세배)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같은 빛,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유아/어동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종교동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스 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은혜집회 오후 8:00  
유치부 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종교동부 청년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사랑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행하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jcc.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213)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등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영아예배 오전 11:00  
아인어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모로 세운 반에 함께 할려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30(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ong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오묘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명의 나눔(매주 목)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토)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주일예배 오전 9:00(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00(본성전) 매일 QT 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별부 오전 8:4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말씀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 (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MP채널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8월 1부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9월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1814 Riverside St., Northridge, CA 91326 새벽기도회 월요일 5:30 / 토 오전 6:00  
T. (818)363-5887 Fax: (323) 837-59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청어람 양희송 대표

“수년간 아내 모르게 다른 여성과 관계”



'성폭력에서 안전한 교회' 캠페인에 참여한 양희송 대표.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홈페이지 캡처

이사회 “품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최근 밝혀진 불륜, 가족에게 너무나 큰 고통 제 삶이 제 말 정직하게 담아내지 못한 결과 모든 공적 활동 사임, 용서 구할 엄두도 못내”

이들은 “본 이사회는 아래 개인 입장문에 실린 사실 관계에 대해 사건 당사자들과의 기본적인 소통과 확

청어람ARMC는 양희송 대표에 대한 ‘이사회 결의와 입장’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양희송 대표 개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인을 거쳐, 금일부로 양희송을 대표에서 면직, 이사회에서 해촉키로 결의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였다”고 발표했다.

양희송 대표는 “저는 수년간 아내 모르게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어왔다”고 고백했다.

또 “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조직으로서 그 전말 모두를 다루기에는 역할의 한계와 실제적 난점이 있었기에, 사실 확인에 있어서 부분적이거나 어느 당사자에게는 시도에 그치기도 하였다”고 했다.

양 대표는 “최근 밝혀진 제 불륜은 온 가족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다”며 “저에게 기대와 신뢰를 보여주신 분들에게도 매우 큰 충격과 실망을 끼치게 되었다. 신앙인으로서, 또한 설교자로서 저의 삶이 제 말을 정직하게 담아내지 못한 결과라고 고백한다”고 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 이사회는 이러한 도덕적 흠결을 안고 있는 이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과 지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청어람ARMC의 이사와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고 했다.

그는 “이제 저는 어떤 비난도 달게 받고, 모든 공적 활동에서 물러나 참회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이런 참담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믿음의 선후배와 동역자들이 느낄 배신감과 황망함을 어찌해야 할지 아득하다”고 전했다. 또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겠다”며 “고통받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충격과 실망 속에 계신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했다.

이사회는 “이 일로 청어람ARMC 후원자, 구독자 그리고 공문장의 성도와 시민 여러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어람은 앞서 9일 홈페이지에 ‘양희송 대표 신상 문제에 대한 이사회 결의와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불륜 사실에 대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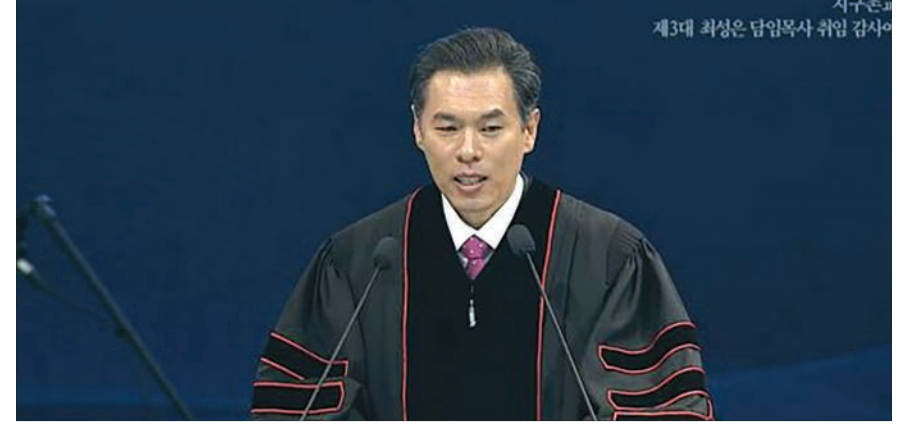
더불어 “청어람ARMC의 임직원들 역시 적잖은 충격과 실망을 겪고 있습니다만, 낙심치 않고 선한 사업을 지속하기를 소망한다”며 “청어람ARMC의 모자람에 대해 질책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 격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이사회 측은 “지난 8월 중순, 양희송 대표 일신상의 문제를 인지하였으며, 그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와 청어람ARMC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공지했다.

양희송 대표는 기독교계의 미투와 성문제에 대해 세미나 등 공적 활동을 통해 활발한 입장을 밝혀 왔으며, SNS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표명해 왔다. 현재 양 대표의 SNS는 폐쇄된 상태이며, 8월 말부터 활동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대웅 기자

최성은 목사, 지구촌교회 담임 취임



지구촌교회 제3대 담임으로 취임한 최성은 목사 ©지구촌교회 영상 캡처

최성은 목사가 8일 취임예배를 드리며 지구촌교회 제3대 담임으로 공식 부임했다. 최 목사는 이날 “이동원 원로목사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후임으로 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아마 모르실 것”이라며 “누구도 이 자리에 감히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꿈을 꾸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제겐 엄청난 부담이었다”고 했다.

이날 취임예배 설교는 흥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로)가 전했다. 흥 목사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성경 속 이야기를 전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최성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 “그저 주님이 부르셨으니 순종하는 막대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높이 들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자 한다”며 “앞선 두 분의 사역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 국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석찬 많은 교인들을 향해 “오직 겸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주님 사역 함께 감당하자”고 전했다.

영상으로 축사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지구촌교회 담임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앞으로 지구촌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목사님이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겸손한 목회자가 되길 당부한다”고 했다. 전임인 진재혁 목사는 “제가 지난 9년 동안 지구촌교회에서 행복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 이뤄가는 귀한 사역을 이뤄가실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 교회 떠나는 청년들 있지만, 남은 이들의 신앙은 회복

#### 바나 그룹 데이비드 데이비드 킨나만 회장 관련 신간 펴내



미국에서 교회를 탈퇴하는 젊은이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의 신앙이 눈에 띄는 정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 리서치 회사인 바나(Barna) 그룹의 데이비드 킨나만(David Kinnaman) 회장은 최근 신간 'Faith For Exiles: 5 Ways for a New Generation to Follow Jesus in a Digital Babylon'에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이탈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대부분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18세부터 29세 청년들의 교회 이탈률은 59%에서 6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년기와 청소년기 때 교회 활동에 열심을 냈다가 이후에 식어지는 식이다.

공동저자인 마크 매킬락(Mark Matlock) 박사와 킨나만 회장은 젊은 신앙인들 가운데 10%를 '회복된 제자들'(resilient disciples)이라고 부른다.

두 저자는 기독교인으로 자란 18~29세 미국 청년 1,29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킨나만 회장은 "대략 400만 명에 해당하는 이들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며, 동시대의 문화적인 긴장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교회를 찾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이 회복된 다양한 원인을 언

급하면서 "이들은 신앙을 자신의 주변 세계와 어떤 식으로 선교적이면서 의미있게 교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숙고한다"고 전했다.

킨나만 회장과 매킬락 박사가 신실한 제자들이라고 언급한 이들 가운데 90% 이상은 "다른 이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 등 삶을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예배는 행사가 아닌 삶의 방식으로서 재능과 달란트로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한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2/3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매우 흥미진진하고, 예수님이 삶과 연관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대답했다.

또 "교회는 우리가 속한 곳이라고 느낀다. 교회를 통해 직장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때마다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지혜를 얻는다"고 했다.

킨나만 회장은 "이러한 형제, 자매들보다 광범위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청년 성인들"이라며 "신실한 제자들을 알게 되면서, 어떠한 형성 경험과 관계성이 젊은이들이 탄력적인 신앙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지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혜진 기자

### 총격에 부상 당한 딸의 모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



앤더슨 데이비스, ©GoFundMe

지난달 31일 미국 텍사스주 오테사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총격으로 목숨을 잃을 뻔 했던 17개월 된 딸의 어머니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고백해 감동을 주고 있다.

4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어머니인 켈리 데이비스(Kelly Davis)에 따르면 그녀의 딸 앤더슨은 오른쪽 가슴에 파편이 박혔고, 아랫입술과 혀에 구멍이 났다. 그리고 앞니가 떨어져 나왔다.

켈리는 CBS 7과의 인터뷰에서 "어린 딸 아이가 총격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 놀라 소리질렀다"면서 "여기저기에 천사들이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폭풍 같은 가운데서도 참으로 침착하게' 우리를 도와주었다"고 말했다.

앤더슨은 회복에 위치한 대학병원센터로 이송됐고 그곳에서 수술을 받았다.

켈리는 "앤더슨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딸은 지난 1일 수술을 받았다"면서 "우리가 이번 사건의 건너편에 있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런 일들로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극의 원인이 아니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

미'(Gofundme)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기도의 응답을 보다 자세히 전했다.

그녀는 "우리는 매우 오랜 시간을 거쳐 러브로 향했다. 그런데 앤더슨은 그 때까지 살아있었다. 이것은 그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 큰 것이었다. 다행히 딸의 상태는 좋았다. 우리는 차로 이동을 했고, 딸은 비행기로 이동했다. 아픈 딸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은 고통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딸 아이는 살아있다. 오늘 다른 이들은 살아있지 않다. 이같은 비극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길 바란다. 또 앤더슨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비슷한 상황이나 더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된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를 풀리쳐주시고, 그들이 더 이상 총격을 가하지 않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앤더슨 가족은 고펀드미 웹사이트에서 3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을 시작했고, 현재 20만 달러가 넘게 모아졌다. 이들은 이번 비극으로 상처입은 가족들을 돕는데 이 모금액을 사용할 예정이다.

모금 캠페인을 함께 이끌고 있는 앤더슨의 어린이집 교사 헤일리 윌커슨(Haylee Wilkerson)은 "앤더슨은 현재 퇴원했고, 놀랍게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주교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주교동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주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재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310) 973-7429

**김준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찬양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 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주교동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동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재삼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951-3153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424) 257-8169 / F.(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 수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호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 열린예배 오후 1:30  
이름딤편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재림의 날이여 (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명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310) 325-4020 / F.(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라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714) 296-6783 www.sbhvisio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310) 618-2222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 T.O.I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분당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묘미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윤 목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도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O.C, 엘바인 지역

결혼고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독무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주교동부 오전 11:00  
Youth College 오전 11:00

**이명익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아침(화-토)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성서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화(화-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듭있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예배 매일 4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렐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Q)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 순복음교회**

예수 영으로 열매를 맺는 복음공동체. ALL IN JESUS 복수적 모든 것을 가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행으로 세를 맺어 함께 할라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주교동부  
수요일예배 오전 8:00 중고동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어진 신의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안창훈 담임목사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안상희 담임목사

1461 W. Orangethe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wbcsocal.com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김일권 담임목사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다우니제일교회**  
행복한 동행!

안성복 담임목사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람학춘 담임목사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이서 담임목사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김한요 담임목사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정기정 담임목사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 749-7770 www.saemmoool.church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박신웅 담임목사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김인철 담임목사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하는 교회

우대권 담임목사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김인철 담임목사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오렌지카운터하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남성수 담임목사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은혜하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관교리 세계선교를 머무릿는 교회

한기홍 담임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경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최성철 담임목사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좋은마을교회**

신원규 담임목사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 646-9259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임경남 담임목사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박훈 담임목사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Bethel English Church**

PASTOR JUSTIN KIM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Cornerstone Church**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PASTOR HAROLD KIM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PASTOR JOSEPH SUK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Good Stewards Church**

PASTOR RONNIE PARK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Inland Church**

PASTOR DAEVID YOON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PASTOR SUNGWON 'SJ' JAHNG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기독교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비비, 석방 후 첫 인터뷰 “신성모독법 개혁되어야”**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8년간 수감 생활을 했으나 추후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아시아 비비. ©한국 순교자의 소리

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 비비가 무죄로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 인터뷰를 갖고 신성모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일 영국 텔레그래프와 인터뷰를 가진 그녀는 “무엇보다 무죄로 석방시켜 준 파키스탄 대법원에 감사하다”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다. 거짓된 고소로 수 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많은 경우들이 있다. 이같은 결정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세계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 세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한다. 어떤 적절한 조사나 증거도 없이 신성모독 혐의를 씌울 수 있는 이러한 체제의 폐해를 알려야 한다. 이 신성모독법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적절한 조사 과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절대 어떤 누구도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로 이 법을 위반했다고 여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8년 동안의 수감생활에 대해 비비는 “나의 신앙이 흐트러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면회 온 딸들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다. 고통과 슬픔이 가득해 혼자 울곤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때로 실망할 때도 있었고, 과연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염려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두렵기도 했다. 나의 삶 전체가 고통이었고, 나의 아이들도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 일은 내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피겔(Jan Figel) 유럽 연합(UN) 특별대사의 중재로 그녀는 지난 5월 캐나다로 이송될 수 있었다. 올해 54세가 된 그녀는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가길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현

재 그녀와 가족들은 캐나다에 머물고 있다.

피겔 대사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비비는 존경스러운 정도로 용감한 여성이며 사랑스러운 어머니이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매우 낡은 체계이며, 이웃과 무고한 이들을 상대로 오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국무부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이들의 수는 77명이다. 그러나 전 판자브 주지사의 아들인 살만 타세르(Salmaan Taseer)는 신성모독법 혐의로 수감된 이들의 수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 비비 사건 이후,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에 신성모독법으로 수감된 40여명 이상의 소수 종교인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청했다. 또 파키스탄 지도부가 종교자유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사를 임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강혜진 기자

**[한국 순교자의 소리] 금주의 중보기도(9/9~9/15)**

- ◇ 09/09 **에티오피아**: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 ◇ 09/10 **아슈라**: 시아파 무슬림 중에서도 이란과 이라크 무슬림은 오늘 소위 ‘무슬림 순교자’를 추모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 ◇ 09/11 **카자흐스탄**: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 ◇ 09/12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이 혼자 힘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돕는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위해.
- ◇ 09/13 **필리핀**: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하

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 09/14 **투르크메니스탄**: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보안 요원을 대동하지 않고 이 나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 09/15 **타지키스탄**: 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이 교회에 자유를 더 부여하는 개혁을 시작하도록.  
한국 VOM(Voice of the Martyrs Korea)은 핍박받는 기독교인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들과 함께 지상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홈페이지 <https://vomkorea.com>

**“이란인들의 영적 각성 주도하는 女 기독교인들”**

**이란 내 기독교 성장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

이란 내 기독교의 성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늑대 속의 양떼들: 볼륨 2’(Sheep Among Wolves: Volume II)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선보였다. 영화가 끝난 뒤에는 영화 제작에 참여한 이들과의 질의 및 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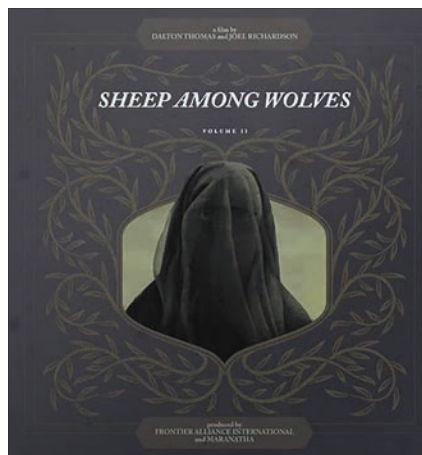
FAI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이 영화는 이슬람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의 전도를 다룬 초기 다큐멘터리 ‘늑대 속의 양: 볼륨 1’에 이어 나온 것이다. 2015년에 나온 다큐멘터리는 지하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FAI 스튜디오는 선교단체인 프런티어 얼라이언스 인터내셔널(Frontier Alliance International, FAI)의 일부로 기독교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맡고 있다.

이들은 로마서 15장 20절, 다소에서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서 복음의 터를 닦고자 했던 말씀에 도전과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FAI는 지난 7월 공개한 예고편에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한 곳의 이야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장 큰 교회의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무슬림을 배경으로 한 이란인



영화 ‘늑대 속의 양떼들: 볼륨 2’ 포스터. ©Frontier Alliance International

들이 조용하지만 대규모의 이슬람 탈출을 이끌고 있으며, 유대인 메시아를 경배하고 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뜨거운 애정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란인들의 각성은 재산이나 건물,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 서양의 교회에서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 급속도의 제자와 운동이다. 특히 여성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를 위한 웹사이트에 따르면, 영화 제작자들은 수의 전액을 이란의 기독교인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강혜진 기자

# 손봉호 박사, '양희송 사건'에 "저 같은 사람에게 심각한 경종"



손봉호 박사.

청어람ARMC(이하 청어람) 양희송 대표가 9일 "수년간 아내 모르게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어왔다"고 했다. 청어람 이사회는 그를 대표직에서 면직하고 이사직에서도 해촉하기로 결의했다.

이교수는 "불륜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충격이다. 더 생각할 게 뭐 있나? (양 전 대표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양 전 대표가 평소 한국교회 의 도덕성을 앞장서 질타해온 인물이었다는 점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이다. 인간이 다 그런 약점이 있다. (그렇기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며 "특별히 다른 사람을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일 수록"이라고 했다.

손 박사는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라며 "자기를 못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욕을 하게 되면 말하는 그 자체가 권위가 다 없어지는 거니까. (양 전 대표 사건은) 저 같은 사람에게 굉장히 심각한 경종"이라고 했다.

손 박사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이날 손 박사에게도 사죄의 뜻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한편, 손봉호 박사는 지난 2017년 11월 양희송 전 대표와 함께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앞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평소 기독교 내 소위 '개혁 진영'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 왔다.

김진영 기자

# 홍콩 시위대, 美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 통과 촉구 美 영사관에 관련 청원서 전달



홍콩 시위대들이 美 영사관 앞에 모여 있다. ©SCMP 보도화면 캡처

지난 4일 홍콩 캐리 램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을 완전히 철회한다고 공식 선언한 후에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시위대는 또 미국 측에 인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주말인 8일 수천 명의 시위대가 홍콩 도심 차터가든에서 집회를 가진 후,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까지 행진했다.

시위대는 총영사관 직원에게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는 지난 6월 홍콩 당국을 압박하기 위해 홍콩에 대한 미국의 특별대우를 매년 재평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홍콩은 중국과 달리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미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홍콩의 자치권이 중국 정부와 공산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끌어온 조슈아 왕(Joshua Wong) 데모리스트 당 비서장이 어제 다시 체포됐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대만에서 귀국하던 중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항의 세관에서 경찰에 붙잡힌 것이라고.

왕은 성명을 통해 오늘 공판 이후 풀려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혜진 기자

## 한국 개신교인 75% "음주' 괜찮아!"

비교적 보수성이 강한 한국교회에서 '음주'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런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조사·통계 결과가 최근 다시 소개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는 지난 4일 '한국인의 음주 실태'에 관한 통계를 분석한 영상에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지난 2017년 10월 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예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음주 수용도'(상황따라 가능+해도 무방)는 평균 75%(남자 76% 여자 74%)로 나타났다. 1998년 같은 조사에선 54%였던 것이 2004년 65%, 2012년 73%로 증가 추세였다.

지용근 대표는 "(음주 수용도에 대한 2017년 조사 결과에서) 남자나 여자나 큰 차이가 없다. 그 정도로 술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수용도를 많이 갖고 있다"고 했다.

지 대표는 "술에 대한 패해를

말씀드리고 싶다"며 각종 조사·통계 결과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한해 100명 중 14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는 통계가 있다. 또 강력·흉악 범죄 중 30%가 음주상태에서 일어났으며, 자살이나 자해도 음주상태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42% 정도였다.

그는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9.5조(2013년 기준)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 홍정길 목사 "동성결혼·공산주의라는 골리앗"

8일 지구촌교회서 열린 이 교회 제3대 최성은 담임목사 취임예배에서 설교한 홍정길 목사(남서울 은혜교회 원로)의 기도가 주목받고 있다.

홍 목사는 이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사도행전 13:2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우리 앞에 동성결혼이라는 골리앗이 우리 앞에 공산주의라는 골리앗이 우리 앞에 멧있는 여러 혼합된 사상들이 골리앗처럼 있을 적에 그 크름 바라보지 않고 주께서 주신 물뿔들을 가지고 '너는 내게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와의 이

름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으로 던져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기도이긴 했지만 홍 목사가 특히 동성애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故 옥한흠·하용조 목사,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와 함께 소위 '복음주의 4인방'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홍 목사는 지난 광복기념주일 설교에서 우리 근현대사에 대해 "세계 역사에서 유례 없는 기적의 역사"라며 "이렇게 찬란한 역사를 적폐로 점철된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

까. 오히려 수많은 적폐로부터 시작해서, 이를 스스로 극복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해 반항을 일으켰다.



홍정길 목사.

김진영 기자

## '동성애 옹호' 혐의 장신대 학생들 목사고시 '불합격'

앞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동성애 옹호' 혐의를 받고 있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두 학생의 목사고시 합격을 보류했던 예장 통합 고시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에서 결국 이 학생들을 올해 목사고시에서 불합격 시키기로 했다.

고시위는 이날 장시간 논의한 끝에 이 학생들에 대한 '면접 탈락'을 결정했다. '동성애 옹호' 혐의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학생들은 내년에도 다시 목사고시 면접을 볼 수 있다.

통합 측은 지난해 제103회 정기총회에서 '동성애 행위자, 동성애 행위를 조장하거나 교육하는 자는 교단 목사고시를 치르지 못하도록' 결의했지만, 이 학생들에게 이것까진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문제가 된 학생들은 논란이 된 '무지개 퍼포먼스'의 당사자와 장신대 전 총학생회장이다. 현재 둘 모두 장신대 신대원에 재학 중이다. 이들은 군종목사(군목) 시험에 합격한 뒤 군목후보생 자격으로 올해 목사고시에 응했다. 김진영 기자

이런! 무언이든 무슨 일이든? • 요즘 스타일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음자가 될까? •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이런! 푸엔테힐스 현대 Puene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 이은테 목사를 붙잡아 준 인생 말씀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 이른 비의 기적 I

# 늦은 비의 기적 II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끼니를 걱정했던 이은테 목사가 수백억에 달하는 세 개의 빌딩과 영어 학교,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 대형 쇼핑몰과 크리스천 캠프장을 운영하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기적!

위클리프를 비롯한 17개 선교 기관들을 섬기고, MEC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지난 20여 년간 2,300여 명의 유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 청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쇠퇴하고 있는 뉴질랜드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생생히 증거한다.

이은테 저음 / 1권 232면 / 13,000원  
이은테 저음 / 2권 252면 / 13,000원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이화장길6 전화 745-1007 **쿤란출판사**

# RPCA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정기 총회 2019년

## 일정

- 목사 고시 2019년 9월 16일(월) 오후 10시 ~ 오후 5시
- 목사 안수식 2019년 9월 23일(월) 오후 6시

일시 : 2019년 9월 23일(월) 오후 3시 ~ 오후 8시

장소 : 나눔과 섬김의 교회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문의: T.(213)272-6031



## RPCA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총회장 김인철 목사  
총회 준비위원장 강성수 목사  
총무 김엘리아 목사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2019년

# 예루살렘 성가단 정기연주회

Let evrytih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2019년 9월 22일(주일) 오후 7시

장소 : 미주평안교회 본당

170 Bimini Pl, Los Angeles, CA90004



특별출연: LA여성선교합창단



단장: 김종용 목사



지휘: 조한우



피아노: 송지영



특별출연: 남기주숙명여대 동문합창단

후원문의: (213)272-6031(단장: 김엘리아 목사), (213)249-6924(총무: 김송현 집사)

### 학사과정

- 신학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 석사과정

- 교역학석사
- 신학석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석사
- 기독교교육학석사

### 박사과정

- 목회학박사
- 신학박사
- 선교학박사
- 기독교상담철학박사
- 기독교교육철학박사

# 밤에 물고기 잡기와 밤에 신랑 맞이하기

요즘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없는 물고기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변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도 너무 변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도 시냇가의 물고기 잡이로 시간을 보내는 일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근 10년 전에 초등학교 동창들 10여명이 약 40년 만에 모여서, 옛날에 놀던 고향 안성천의 다리 밑에서 피라미와 붕어를 잡아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잊기 어려운 추억입니다.



민 중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 서너이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반드시 준비하여야 할 것이 햇불과 기름통이었습니다. 햇불은 집에 있는 숯, 못쓰는 옷가지나 헝겊을 가는 철사로 꼭꼭 문쳐서 그것을 다시 긴 철사에 묶고 나무로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유를 2리터 정도 사서 강통에 담았습니다. 밤이 어두워지면,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치고 잔잔하게 물이 고인 곳에 햇불을 밝혔습니다. 신기하게도 잡자는 물고기들은 불을 보고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밤에는 좀다시피 고기를 잡았습니다. 불에 비쳐서 빨강계 보이는 고기를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밤에 물고기를 잡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그물, 햇불과 기름통과 물고기통이었습니다.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고

기가 많아도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타는 햇불이 지속적으로 타오르도록 자주 햇불을 기름에 적셨습니다. 햇불을 오래 켜면 형광이 타서 줄어드게 됩니다. 형광이 타지 않도록 기름이 다 타서 없어지기 전에 기름에 햇불을 적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결혼식 연회를 치르기 위하여 신랑이 처가로 신부를 찾아오는 예식이 있습니다. 중동 결혼식의 특징은 밤에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언제 신부의 집을 울지 알지 못합니다. 밤에 오기 때문에 햇불이 필요합니다. 신랑이 오면 신부의 친구 처녀들은 등불을 켜서 신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이어서 신랑을 신부와 함께 연회장으로 인도합니다. 신랑 신부의 친구들은 연회장이 어딘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알 수 없는 것은 신

랑이 오는 시간이므로 여분의 기름을 기름통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밤에 물고기 잡는 시간은 기름이 준비된 양에 비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거나 기름의 양이 적다면, 예식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에서는 천국이 이와 같다고 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식의 신랑처럼 "갑자기" 오십니다. 갑자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불, 곧 햇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모두 햇불을 준비하는 중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름 그릇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빛을 밝힌다 함은 성도들이 참된 행실을 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갑작스런 재림에 대비하여 평소 준비하여야 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게으름과 부주의함이 한없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고, 종말의 구원과 배제도 확실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햇불을 밝히는 시간은 준비한 기름의 양에 비례합니다.

# 그리스도인의 비범함

오늘도 책 한권을 목상해 보려 책을 폈다. 책의 제목은 "존 비비어의 은혜"라는 책이다.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명하며 한 단어를 소개하며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 단어는 바로 "비범함"이라는 단어이다. 책 서두에는 "하나님은 당신이 비범하게 살기를 바라실 뿐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도록 당신을 갖추어 주셨다." 고 소개하고 있다. 그럼 비범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비범함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삶에 모든 영역들에서 평범하고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삶이 아닌 열망과 희망을 가지고 평범해 보이는 삶에서 벗어남을 이야기 하는 단어이다. 그렇다. 비범함이란 "보통의 수 준보다 뛰어나게 됨", "평범함에서 벗어나다." 로 이해하고 정의할 수 있는 단어이다. 그리고 이 모든 정의를 종합해서 우리는 "비범함의 반대말이 평범함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다.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단어 즉 "비범함"에서 많은 질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과연 그리스도인의 비범함의 기준과 시작은 어디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여 비범해라!" 라고 누군가가 외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의미화 해석에 많은 혼돈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자신들의 존재나 삶의 의미가 예전과 비교해 그 이상하기를 원한다. 무엇보다 사람들 안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평범함을 초월하려는 타고난 갈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범함"이라는 단어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범함"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비범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인 거룩함을 위해 살아야 함을 말

하고 있다. 요즘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이와 같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없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따라 우리 삶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비범함"을 이룰 수 없게 된다. 그렇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지음 받은 자기 본연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왜곡된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결코 우리가 "비범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비범함"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 해답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지음 받은 자기 본연의 존재를 발견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너무 평범해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평범함은 하나님의 형상과 너무 멀게 만 느껴질 때가 있다.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려진 우리의 형상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범한 삶의 잠재력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이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은 비범함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득 채워야 하는 "소명자"이다. 오늘도 우리의 잠재력을 깨우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갈망을 깨워 달라고 기도하며 승리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 최고의 가치 하나 됨

성경에서 증거 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가치 중에 하나는 '하나 됨'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나타난 구절이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중략)...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므로 하나가 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13:34-45)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우며 주도한 분이시니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엡 4:3, 5)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이번에 캐나다 캘거리에서의 PWC 세계 오순절 대회는 전 세계에서 약 4천 명이 넘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 되는'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찬기도회는 세계 오순절 총회의 각국 리더들과 한국과 북미총회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 '하나 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순복음 세계선교회 재단 이사회와 북미총회의 상임위원회, 실행위원회 등

의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 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됨을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믿는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공동체를 통해 임하는 것이고, 하나 된 공동체는 하늘의 권세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열의 영인 원수 마귀가 공동체의 '하나 됨'을 무섭게 훼방합니다. 또 죄지는 인간의 본성은 개인주의, 자기주의를 쉽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 됨'은 십자가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용서로 인한 수용능력이 키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서 흘러넘치는 은혜와 용서로 이웃과 심지어 원수라도 하나 될 수 있는 수용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거대한 하나의 피라미드를 만들려면 무수히 많은 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돌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꿈, 도전, 그 꿈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떤 난관과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앞장 선 사람의 긍정 에너지가 10년을 넘어 100년, 1,000년으로 이어질 피라미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세상의 어떤 좋은 일도 나에게 그저 다가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 육체와 본성이 개인적 안일과 편안을 위해 파도칠 때 방향을 돌려 반대편으로 용기를 내어 가야만 세상 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과 성공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순종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용기를 내어 내 본성과 반대 방향을 향해가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 됨'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새 역사와 복을 체험하며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2019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국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라인과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nisteri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9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Faith Christ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3242 W. 8th Street #200., LA, CA 90005  
Tel: (818)913-3115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Dietary Supplement

# 햄프함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함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신이 내린 항암식품!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변 제거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햄프함초환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1,800 환

~~\$250~~ +Tax

**\$19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를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함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2 장에 좋다

함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심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4 당뇨에 좋다

함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간에 좋다

함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항암에 좋다

함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함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7 식이섬유가 많다

함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 칼슘이 많다

함초에는 우유의 2배가 넘는 양의 칼슘이 함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히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 보고서 '놀라운 함초의 효능' 에 항염증, 항균, 갑상선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 바하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정제염 - 표소금, 맛소금)
나트륨 Na : Cl	나트륨 (Na)
칼륨 K :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슘 Ca : Cl	
마그네슘 Mg : Cl	

99.70% 미네랄 소금  
최상급 천일염, NO 중금속  
NO 간수



515g  
바하 천일염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 바하함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함초! 바하함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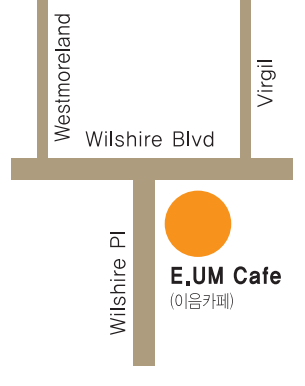
150g  
바하함초분말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E,UM Cafe (이음카페)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함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 CBD BAJA HAMCHO Inc.

(213)434-1170, (213)605-2772

www.hempbioussa.com hempbioussa@gmail.com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 손가락
  - ✓ 발가락
  -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 탈모
- 치질
- 갑상선
- 당뇨

“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혜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림
- 옆구리 통증(염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불복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역,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신경병,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햇볕레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기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불혹, 근중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매끼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위 아드모아)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 1920~30년대의 교회 상황(사이비 접신파)

이용도의 극단적인 신비주의적 색채가 기성교회의 거부감을 불러일으켰고, 이 때문에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의 신비주의는 결국 기독교의 원론적 진리를 뛰어넘는 경지에 이르렀고, 이는 자신의 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가 되어다. 그것은 그가 원산의 접신녀인 유명화(劉明化)에게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하여, 그녀 앞에 엎드려 “주여.”라고 한 데서 단적으로 나타났다.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명, 광재의 장인이 될 박승찬 두쌍의 결혼식을 이용도의 주례로 성찬예식을 겸하여 거행하였다.

원산신학산의 교장 격이었던 백남주가 유명화 등과 결탁하여 이용도, 그리고 전 감리교 목사였던 이호빈(李浩彬) 등을 신탁(信託)이라고 꼬여 이들과 더불어 평양 장로회신학교 후문 앞, 즉 서문고녀(西門高女) 앞에 ‘중앙선교회관’을 짓고 ‘예수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예수교회의 핵심적 교리는 다음과 같다. 1. 성경권위 부인, 2. 삼위일체 신(神) 부인, 3. 예수의 재림과 신자의 부활 부인, 4. 천계(天界)에 대한 이설(異說), 5. 예수의 가형설(假形說), 6. 원죄와 속죄 공로 부인 등이었다.

백남주는 또 여신도 김정일(金貞一)과 동거하였는데 이것이 문제화되자 또 신명(神命)이라고 하면서, 철산에서 일어난 김성도(金聖道)라는 ‘새 주’(主)와 더불어 성주(聖主)교회를 만들었다. 이용도를 대표로 한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할 때 이용도는 적극 반대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이름으로 포교계가 당국에 제출되자 그는 이들에 이용당한 셈이 되었지만, 그가 이들과 더불어 행동한 책임은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용도는 김인서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주님이 스웨덴보그와 선다 심에게는 간접으로 나타났지만 원산의 모녀(某女:유명화)에게는 직접 진림(親臨)하셨으니 형님 와서 보십시오.”라 하였고, 평양에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과연 주님이 원산에 진림하셨다. 원산서 삼성자(三聖者)가 탄생하시니 조신아 복되다. 큰 축복을 맞이하기 위하여 먼저 교회를 갈라 세우라

는 주님 명령 복종하오리다.”고 하였으니 이용도가 만년에 사이비 접신파들과 어울린 형편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정리되지 않은 신비주의는 결국 이단으로 가는 길목임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혼란한 시대에는 언제나 대중을 유혹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게 하는 이단자가 나오게 마련이다. 접신극(接神劇)을 벌이는 자들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이단의 무리들이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다. 그 장본인은 황국주(黃國柱)다. 그는 황해도 장연(長淵) 사람으로 간도로 이민 가서 용정중앙교회에 출석하던 30세의 청년이었다. 그의 용모는 무척 준수하고 얼굴 모양이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과 무척 흡사하였다. 그가 100일 기도를 하고 나서 머리털을 길게 내려뜨리고, 수염도 깎지 않고 길러 예수의 모습과 흡사하게 만들고는 “기도 중에 예수가 내 목을 때고, 예수의 머리로 갈아 붙여 머리도 예수의 머리, 피도 예수의 피, 마음도 예수의 마음, 이적(異蹟)도 예수의 이적, 내 전부를 예수화 하였다.”고 황당무계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소위 ‘목가름’, ‘피가름’이었다. 그는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을 도취시키는 설교와 기도로써 많은 사람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였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황 장로도 자기 아들 국주 앞에 무릎 꿇고서,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 그때의 형편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황국주는 예수로 변하여 새 예루살렘을 찾아간다고 두만강을 건너 서울을 향해 떠났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그의 아버지 황 장로와 누이 그리고 많은 부녀자들이 함께하였다. 새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이 퍼지자 각처에서 예수를 구경하러 대중들이 몰려나와 그들 일행을 지켜보았다. 그를 따르는 수십 명의 처녀, 유부녀들과 남자들은 무리를 이루어 정상적인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울려 먹고, 자고, 여행을 하였다. 이 과정에 정숙한 생활이 있을 수 없었으며, 난잡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 “‘동성애 유전자 없다’는 과학적 사실 대중에 알려야”

민성길 박사, 최근 미·영의 동성애 GWAS 분석

최근 “동성애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알려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종합병원과 하버드대, 영국 캠브릿지대 등 국제공동연구진이 미국과 영국에서 동성간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과 여성 47만 7,522명의 유전체를 조사한 결과였다.

이에 민성길 박사(연세의대 정신의학 명예교수)가 해당 GWAS(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전장유전체 연관분석) 논문을 분석해 그 의미를 설명했다. 우선 민 박사는 이번 연구의 결과를 아래 8가지로 정리했다.

① 동성애 성행동과 관련된 5개의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

② 이들 5개 유전자들은 함께 동성애 행동의 1%를 설명한다. 연구된 수천 개의 유전자 변이들을 모두 합치면 동성애 행동의 8~25%를 설명한다.

③ 단일의 동성애 유전자(gay gene)는 없다. 과거 동성애 유전자라고 주장되었던 Xq28은 관련이 없었다.

④ 동성애 행동과 관련된 유전자들은 남녀 모두에서 여러 인간 행동 특성들(예를 들어 우울증, 조현병(정신분열병), 성적 파트너 수가 많음, 마리화나 사용 등)과 유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고 있다.

⑤ 남자 동성애와 관련된 두 유전자는 각각 남자 대머리와 후각에 관련된 유전자이다. 여성의 경우 양극성 장애(조울병)와 흡연이 많았다. 이는 같은 동성애라하더라도 남녀가 유전적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⑥ 이런 행동특성들 즉 우울증, 조현병(정신분열병), 성적 파트너 수가 많음, 마리화나 사용 등, 대머리, 후각예민성, 양극성 장애, 흡연 등 행동이 많이 겹쳐 있을수록 동성애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⑦ 동성애는 이성애의 대극이라는 단일한 연속선(continuum) 상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 세트들의 연속선들의 복합체로 추정된다.

⑧ 동성애가 발달하는 데는 생물학적(유전적) 요인들보다 환경적 내지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민 박사는 “지난 30여 년간의 동성애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 역사를 보면 가설이 사회적 진실이 되는 기막힌 과정을 볼 수 있다”며 “그런 가설들은 추가 실험에서 재검증 되지 않았고, 여전히 가설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옹호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바람에, 대중의 마음에 ‘동성애는 타고난다’는 생각이 각인되어 자리 잡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연구의) 동성애 GWAS가 47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결과는 과학적 진실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연구가 실제 임상에서 발견되고 있는 바, 동성애가 정신장애, 물질 남용, 성파트너 수가 많음(문란함) 등 여러 관련 문제행동들과의 유전적 관련성을 입증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 원인으로 정신사회적 영향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성길 연세의대 정신과 명예교수

민 박사는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가 정상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 중 하나는 동성애가 유전되므로 자연스럽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동성애도 인간의 다른 모든 인간의 행동과 같이 유전적 특성이 5개 정도 발견되고 있지만, 이는 우울증보다 훨씬 적다. 우울증에 관련된 유전자 변이는 100개가 넘게 발견되고 있다. 동성애는 우울증보다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 발달하는 한 행동양식이다. 이 연구도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이런 부정적 행동 특징들이 많이 있을수록 그가 동성애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가 타고난다’ 또는 ‘호르몬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다.”며 “이러한 오류를 근거로 한국 사회는 개방적 성교육이나 차별금지법 같은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민 박사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하다. 동성애의 ‘과학적 사실’들을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며 “인간행동은 유전적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특정 유전자들이 있어 그 특정 행동이 나타날 확률을 약간 올릴 뿐이다. 본 연구에서 의미있는 유전자들 5개가 동성애 발현에 기여하는 확률은 1%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가 유전인지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기 어렵게 되었다. 남은 문제는 동성애가 정상적이고 긍정적 행동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그 ‘열매를 보아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제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그 선천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정신사회적 원인과, 치유하는 방법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영 기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에서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헤어 컬러 알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sup>up</sup>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됩니다.

WELLA SEBASTIAN PROFESSIONAL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u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주일학교  
 영타슈  
 영미로고  
 머그컵&텀블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자서전(대필)전문**

■ 자서전 쓸 분  
 ■ 대한민국출생 8.15와 6.25등 많은 경험 후 지금 성공 자리에 서신 분

자녀들과 같이 자서전 쓰고 싶은 분 연락바랍니다.

자서전(대필)전문 작가(시인·박사)  
**T. (213) 618-150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0년만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기독교일보와 함께하는 여행 성도간의 교제, 단합, 힐링을 위한 시간!

**교회 맞춤형 힐링 여행**

교회 상황에 맞추어 원하시는 날짜, 인원에게 여행 플랜을 드립니다.

**10월**

추억만들기 단풍여행 **1박 2일**

**비숍 단풍**

가을이면 온 세상이 아름다운 황금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비숍에 가보자. 맘모스레이크와 준레이크에서 발화된 단풍의 볼길은 사브리나 호수(Lake Sabrina)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199** 10/10(목)~11(금) 1박 2일

**11월**

기차 타고 떠나보자~

**샌디에고 여행**

태평양연안 기차여행, 샌클라멘테 피어, 렉시 뷔페, 발보아 파크

**\$99** 11/9(토) 당일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  
**Tel. 213.739.040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chdailya@gmail.com

천 오백만불 보험가입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만족'을 넘어 '놀라움'으로

# 70세 박막례 할머니의 유튜브, 100세 아브라함의 믿음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박막례, 김유라  
위즈덤하우스 | 344쪽

독보적 유튜버 박막례와 천재 PD 손녀 김유라의 말도 안 되게 뒤집힌 신나는 인생!

박막례 할머니가 살아온 삶이 증명하듯, 인생은 끝까지 모를 일. 일찌감치 끝났다고 포기를 외치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삶이 아직 많다.

70세에 유튜브로 인생 바꾼 박막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 포기, 외쳐야 하는 순간과 마주할 때

구독자 100만 명을 거느린 인기 유튜버가 있다. 매년 구글 본사에 초대받는다. 유튜브 CEO는 이 유튜버에게 영감을 얻었다고 말하며, 몇 년 전에는 직접 얼굴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아왔다.

이 유튜버의 이름은 '박막례'다. 그녀는 올해 73살의 할머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의 이름도 'Korea Grandma'다.

그녀를 보는 사람들은 놀란다. 먼저 100만 명이라는 구독자 수에서 놀라고, 그녀의 나이에 또 한 번 놀란다. 과연 73세의 나이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불현듯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듣고 웃었다.

"아브라함이 었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창 17:17)".

현실적 상황과 환경, 모든 요건이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도 믿음 좋은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고 웃어넘겼다. 그 웃음 속에는 사실상 '포기'의 의사가 담겨 있었다. 불가능해 보였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포기'를 외쳐야 하는 순간과 마주할 때가 많다.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서,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혹은 자신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한계 앞에서 우리는 '포기'를 외친다.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의 저자 박막례 할머니도 그런 인생이었다.

"집안의 막내딸이어서 '막례'라는 이름을 받았다. 동네에서는 그래도 있는 집 자식이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공부할 기회도 없이 집안일만 했다. 그러다 남자 잘못 만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50년을 더 죽어라 일만 했다."

치매 가능성 진단받은 70세 박막례 여행 영상 시작으로, 구독자 100만 70대에 이런 행복을 줄은... 놀라움

박막례 할머니는 리어카 과일 장사, 꽃 장사, 옛 장사, 식당 주인 등 다양한 일을 하다 실패를 경험한다. 사람이 좋아서 이웃과 친척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그러다 70살이 되었을 때, 치매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게 된다. 그녀는 70세가 되던 해 인생을 포기해 버린다.

"그냥 관 뚜껑 덮을 때까지 일하다 갈 팔자려니."

그러나 그녀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된다.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다.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을 몰랐다. 나이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될지 누가 알았겠는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물한다.

손녀와 여행 가서 찍었던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18명이었던 구독자가 어느덧 100만 명이 되었다. 박막례 할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이라는 게 참... 세상에서 내 인생이 제일 불쌍하다 싶은 정도로 힘들었는데 말이며,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구먼. 일흔한 살에 이런 행복이 나한테 올 줄 알았는감?"

하나님도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놀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놀라움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진짜 감동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점잖게 웃으며 만족하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만족'이 아니라 '놀라움'을 주셨다.

성경 속 주인공의 삶은 놀라움의 연속이다. 하나님이 놀라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의 삶도 '놀라움'으로 가득 찰 수 있다.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의 공동 저자인 김유라는 "내일이 너무너무 걱정될 때, 만약 그래도 당신의 미래가 불안하다면 이 책의 첫 페이지로 돌아가 박막례의 유년 시절을 읽어봅시다"라고 말한다.

김유라는 박막례 할머니의 손녀다. 70년 동안 고생만 한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다는 말을 듣게 된다. 불쌍한 할머니를 그대로 둘 수 없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할머니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할머니를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할머니의 영상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그녀는 포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기대도 해 보시기를. 인생은 길더라고요. 우리 모두 꽤 멋진 70대를 고대해 봅시다."

정말 인생은 길다. 누군가 인생은 60부터라고 말한다. 지금 60은 청년기에 속한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가 올 것이다.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정말 알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

박막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60대만 넘으면 정년 퇴임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기서 나보다 늙은 사람도 커피숍에서 커피 타고 알바하더라. 미국은 자기 능력만 되면 한한다. 나보다 나이 많은 백발 할머니도 앞치마 둘러 매고 일하니까 내 기분이 다 이상하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감동'이란 것 같아."

### 감동은 누군가에게 놀라움 주는 일 고연령의 고정관념 뒤집은 박막례 아브라함 '100세 인생' 쓰신 하나님

우리는 박막례 할머니의 삶을 보면서 감동한다. 감동은 다른 누군가에게 놀라움을 주는 일이다.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화를 낡음과 쇠약함의 이미지와 연결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연령은 차별과 고정관념의 대상이 된다. 그 결과 소외와 불평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박막례 할머니의 삶은 고연령의 차별과 고정관념을 뒤집고 있다. 그 놀라움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늘 놀라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찾는다.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소중하다. 그러나 다음 세대만 소중한 것은 아니다. 모든 세대가 소중하다.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준비가 교회 안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박막례 할머니는 70이 넘는 나이에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왜 남한테 장단을 맞추려고 하나, 북 치고 장구 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추는 거여."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갈 때 의미를 발견한다. 아직 인생은 길게 남아 있다. 남은 인생을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놀라움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주실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만족'을 넘어 '놀라움'으로 가득 찬 그날을 함께 꿈꿔본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침례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 한인교회를 위한 SUMMER EVENT



VBS T-Shirt  
Full Color Printing  
Adult \$ 7.20  
Kids \$ 5.50



그 밖에도 VBS를 위한 물티슈, 가방, 배너, 포스터, 초대장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프린트CD+CD봉투+라벨] 포함입니다.

### BANNER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00년 전, 소녀들이 남긴  
그날의 가장 생생한 기록!

# 1919 유관순

그녀들의 조국  
남가주 상영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후원작품

나래이션/하희라 출연/이세봄 양윤희 김나니 박자의 김규리 김무리 류의도 장세아 황도원 문보람 나애진 특별출연/황현주 김광식 오지현 우정출연/권영찬 김홍표

감독/신상민 작가/이은혜 총감독/윤학렬 제작/ 유관순 문화산업협업유한회사 공동제작/하세(HASE) | (주)성진본고기 | 송연기업 | (주)풍진 | (주)여의 | 기드온동족선교회 | 근우회 | 나눔과 기쁨  
기획 이은혜/김승연 총감독 윤학렬 감독 / 편집 신상민 필러소셜 이은혜 구성작가 장지윤/김예원/김문주 각색 권선 송필프로듀서 최정선 책임프로듀서 최정현 기획이사 김민희 제작이사 박상현 조감독 송가진 촬영감독 권오경 조광감독 서종평 음악감독 김민희 총사운드 송민규(Sound K) 장비 영가수  
분장실장 장혜림(make-up 안) 특수분장제작 소지현(SSOART) 미술감독 박영규(YG픽쳐스) 특수효과 도광섭 세트 날기상 CG 문민식(바닐라 스튜디오) DI/DCP/믹싱 나상인(사운드피플) 보조출연 서울센트럴오피스 T&S 홍보 마케팅 한옥(영화의 온도) 기획팀 김준형/김건성/김우진 재무팀장 객지재  
디자인 민경희(보보) 베이킹 일음진 케스팅지원 주성주(이규엔터테인먼트) 예고편 오대석(타이리언스) 역사 고희용 유관순연구소/기념사업회/역사대 유관순 연구소  
후원 / (주)한성애프라이 율포유 | 서울도시재생 | 한국수력원자력 | KDB산업은행 | 동화세상에듀코 | 한국서부발전회 | 허브데이 | (주)농농비료 | 인스론 협찬 / (주)이마트24 | 삼성카드 | 허브데이 | 한국경제위원회 | 서울교통공사 | 서울경제연합 | (주)한미실업



2019.3

## 상영안내

일시 : 2019년 9월 27일(금), 저녁 7시

장소 : 갈보리믿음교회 웨스트민스터 채플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